

李達의 詩研究

박 노 현 *

<目次>

- | | |
|-------------|-------------|
| I. 序論 | 2. 李達 詩의 內容 |
| II. 本論 | III. 結論 |
| 1. 李達 詩의 思想 | |

<국문 초록>

李達의 신분이 當時에는 천시 받는 庶孽이었기에 後代에 내려오면서 그의 문학적 가치에 비해 그리 큰 각광을 받지 못해왔으나 그의 詩作品이 當時에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詩人으로 불리웠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다. 또 當時에 三唐詩人으로 불리울만치 한국한문학사에 커다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첫째, 李達 詩 속에 담긴 사상들을 儒·佛·道家思想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李達의 학문적 근원은 물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儒家가 기본적인 중심이 되었으나 유가 이외에도 佛家·道家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즉 이는 당시 시대적으로 차별 받는 庶孽이라는 신분 때문에 儒家에서 최종 목표인 立身揚名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갖지 못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修道的이고 幻想的인 禪과 道를 추구하여 현실의 괴로움을 超脫하고자 하였고 또한 이를 현실적인 도피처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둘째, 李達의 詩作品의 內容을 感情移入, 自然描寫, 現實批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感情移入에서는 李達 자신이 이 삶의 세계 속에 느끼는 좌절감, 정착을 향한 회구, 이별에 대한 아픔 등을 묘사하고 있다.

* 상지영서대학 관광중국어통역과 교수 / san0877@hanmail.net

또 自然描寫에서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一生을 流落生活로 보낸 李達에게 있어서 自然은 그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즉 李達의 思惟와 感覺樣式을 通하여 自然을 묘사, 그리고 詩化하고 있는데, 마치 한 폭의 山水畫 내지는 文人畫를 보는 듯하게 아주 섬세하고 깔끔한 필치로 自然을 객관화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세 번째 現實批評이 있는데 東西分黨을 상징적으로 詩化한 것이나, 또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관가의 수탈을 노래한 것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여기저기로 피난을 다녀야 하는 고통과 가족들 離散에 대해 현실적 상황을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비평하고 있다.

【주제어】 李達, 詩, 儒·佛·道家思想, 感情移入, 自然描寫, 現實批評

I. 序論

李達이 生涯를 보낸 시기는 明宗·宣祖年間으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士林勢力和 勳舊勢力間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士禍가 일어났고, 그 이후 또다시 士林派 내부적 갈등으로 인하여 마침내는 東西分黨으로 黨爭이 극심한 때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중국학설의 영향을 받아 主理·主氣의 학술상 차이와 師弟·交遊관계로 각기 朋黨을 이루어 黨爭에 있어서나 출세에 있어서 모두 是非를 초월하여 단합함으로써 정치상의 대립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黨爭과 逆獄, 苛斂誅求로 인한 농촌의 피폐 등 당시 사회구조의 모순과 한계점을 야기시켰고, 또 宣祖 25년(1592)에는 왜군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어 民亂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즉 나라는 內憂外患에 시달리게 된 무척 혼란스런 시기였다. 또 사회제도상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身分社會로 嫡庶의 차별이 엄격하였다. 妾의 子孫은 庶孽이라 하여 관리 등용의 시험인 과거에 응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법령도 있었으니 설사 관리에 등용된다하더라도 限品敍用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一家 내

에 있어서도 嫡庶의 위치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었을 뿐 아니라 庶子는 상속권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주할 가정을 가지지 못하여 산천을 방황하는 이가 많았다.

李達은 이렇게 철저한 신분사회 하에서 庶孽로 태어나 불우한 삶을 보냈으나 詩作을 통하여 손상된 자기 위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高麗朝부터 송상해왔던 교훈적이며 철학적인 宋詩風을 버리고 性情을 표현하는 唐風을 익혀서 당시 唐風의 詩를 지은 三唐 시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경지를 보여주었다. 또 그의 詩 傾向은, 庶孽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개인적인 정서를 읊은 情恨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랑생활로 평생을 보내고 더욱이 임진왜란까지 겪은 고통과 불우한 삶이었기에 그의 작품에는 孤獨과 哀切, 悲痛 등의 情恨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어떤 문인이나 학자가 이룩한 학문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李達과 같이 수용한 학문의 범위가 넓고, 또 그것을 수용하여 완전히 자기화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한층 복잡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李達의 학문적 근원은 물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儒家가 기본적인 바탕은 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그의 시작품속에 나타난 사상을 좀 더 분석해 보면 儒家 이외에도 佛家·道家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즉 다시 말해 修道的이고 幻想的인 禪과 道를 추구하여 현실의 괴로움을 초탈하고자 하였다. 또 李達이 後代까지 三唐 詩人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쓴 詩作品을 놓고 볼 때 그의 詩作品 세계가 아주 독특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과연 그의 詩作品에 나타난 詩內容은 무엇인가?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연구 범위는 『蓀谷集』의 서울대 규장각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을 참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의 연구 방법으로는 李達의 詩作品속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 관점의 縱的 關

係와 詩에 나타난 詩內容의 특질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橫的 關係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人文社會科學的 諸方法을 援用하고자 한다.

II. 本論

1. 李達 詩의 思想

조선조 전통적인 崇儒抑佛의 사회구조 속에서 공부를 한 선비라면 누구나 立身揚名의 큰 뜻을 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어떠한 경로로 인해 立身揚名의 기회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방황과 은둔, 그리고 佛家와 道家로 歸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不爲五斗米折腰’를 노래했던 陶淵明이 그러했고, ‘小舟從此逝, 江海寄餘生’을 노래했던 蘇東坡 역시 그러했다. 李達 역시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하며 과거를 통하여 立身功名하고, 治民治國하려고 忠恕仁愛를 기본으로 인격수양에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사회적으로 엄격한 신분사회로 嫡子와 庶子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기 때문에 재주는 있으나 사회구조 자체가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말미암아 李達은 젊은 시절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좌절감은 李達로 하여금 행동은 방랑이요, 정신적 세계는 佛家와 道家에서 당시 자신에게 처해있던 불우한 현실로부터 탈출구를 찾게 하고 있다.

1) 儒家思想

먼저 그의 詩 「到帶方府示府伯」에서 그가 방랑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

天涯熟食適清明 아주 먼 지방에서 따뜻한 음식으로 청명을 맞이하니
異地淹留見客情 타향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정회가 느껴집니다.

京洛數年消息斷	서울에선 수년간 소식도 끊기고
別離中夜夢魂驚	헤어짐으로 인해 한 밤중에 꿈에서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
高官已自歸勳業	高官 職位는 이미 스스로 공 세운 사람에게 돌아갔는데
造物終須忘盛名	造物主는 끝내 이름 드날리는 것을 잊었군요.
從比春風無限好	이제부터 봄바람은 한없이 살랑거리며
有山向處不歸耕	산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밭 갈러 돌아갈 수 없겠습니까 ¹⁾

조선시대의 시대적 정서로 볼 때 선비라면 어느 누구라도 儒家의 기본적 목표인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제일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建立功名하지 못한 蓀谷 자신의 처지, 아니 庶孽이라는 당시의 신분적 제약 때문에 建立功名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이 詩는 원래 예조판서를 지낸 月汀 尹根壽에게 지어 보낸 詩이다. 淸明을 맞은 客地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서러움, 외로움 등이 詩의 전반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頸聯에서는 고향을 떠나 낯선 곳을 전전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좌절감을 조물주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고 맨 끝련에서는 계절적으로 농사 시작하는 봄이건만, 立身揚名은 둘째 치고 돌아가 농사지을 땅 한 평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데 이는 정착하지 못하고 근원적으로 방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처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 詩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면 현실에의 기대와 포부는 컸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좌절에서 그의 방랑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李達은 한때 漢史學官이 되었다가 맞지 않아 버리고 나왔으나²⁾ 그가 立身揚名에 대한 욕심이나 포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신분제한의 시대적 상황 하에 그가 처해 있는 입장이 立身揚名을 이루어 내기에는 큰 제약이 되었다. 이와 같은 恨을 노래한 詩 「洛陽有感」을 보기로 하겠다.

1) 李達, 『蓀谷詩集』 卷4.

2) 許筠, 『蓀谷山人傳』 “爲漢史學官 有不合 棄去之”

好爵高官處處逢 좋은 벼슬 고관들 곳곳에서 만나는데
 車如流水馬如龍 수레는 흐르는 물처럼 빠르고 말은 龍같구나
 長安陌上時回首 장안 거리 위에서 때때로 머리를 돌리면
 咫尺君門隔九重 지척의 궁궐은 아홉 겹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네³⁾

城闕參差甲第連 성궐과 비슷한 좋은 집들 이어져 있고
 五候歌管佛雲烟 五候의 노래, 피리소리는 구름과 연기처럼 치솟네
 灞陵橋上騎驢客 파릉교 위에 말탄 나그네는
 不獨襄陽孟浩然 양양의 맹호연 뿐이 아닐세⁴⁾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李達이 洛陽에 갔을 때 느끼는 소외감과 자신의 불우함을 한탄하고 있다. 그래서 ‘有感’이다. 첫째 首에서 ‘有感’은 1句에서 나타나듯 여러 곳에서 많은 고관들을 만날 수 있었고, 2句에서 그들의 수레는 마치 물처럼 빠르고, 말은 용처럼 위엄 있게 작가에게는 보여졌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작가의 심경은 어땠을까? 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3·4句에서 머리를 돌려 君王이 계신 궁궐을 바라보니 비록 거리는 지척에 있으나 그곳에 출입할 문은 아홉 겹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 즉 사회적 신분제도의 제한으로 벼슬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 詩에서 작가가 느끼는 심한 좌절감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2·4句에서 비유적으로 비교적 잘 묘사하고 있다.

둘째 首의 1·2句에서 아주 넓고 좋은 집들이 성문과 이어져 있듯 많이 있고, 한나라 때 황후의 戚里 5兄弟처럼 세도가들의 노래와 피리 소리가 하늘 위 구름까지 치솟으니, 이는 고관들의 위용을 한껏 표현했고, 3·4句에 孟浩然과 자신과 同一視하는 작가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두 詩 모두 가슴속 저 깊이 느끼는 立身揚名에 대한 갈구와 현실적 좌절감이 뚜렷이 나타나는 작품들이다.

3) 李達, 『蓀谷集』 卷2, 「洛陽有感」 其一.

4) 李達, 『蓀谷集』 卷2, 「洛陽有感」 其二.

人間萬事不如意	인간 세계의 일들이 내 뜻과 같지 않은 법이니
得失悠悠看塞翁	얻고 잃는 덧없음을 새옹에게서 알겠구나
好月樓臺還有病	달빛 좋은 누대에서는 오히려 병을 얻게 되고
落花時節每多風	꽃 지는 시절엔 늘 바람이 많구나
倘來軒冕處無裏	언제나 역사 속의 고관들 허망하지 않았더니
過去英雄寂寞中	과거의 영웅들도 이제 모두 사라졌는데
五十之年何所用	내 나이 이미 50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一聲長嘯望遙空	길게 휘파람 불고는 아득한 하늘 바라본다네 ⁵⁾

立身揚名하지 못한 불만족스런 작가의 현실적 입장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1句에서는 ‘不如意’로 이미 좌절의 한 많은 작가의 심경을 예시하고 있고, 2句에서 중국 『列子』에 나오는 ‘塞翁失馬’의 典故를 이용해 자신의 不出世를 억지로 자위하고 있다. 3·4句 역시 ‘有病’, ‘落花’, ‘多風’ 등과 5·6句의 ‘虛無裏’, ‘寂寞中’으로 작가가 자신의 입장을 바라보는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다. 7句에서 이미 50세의 落花같은 존재인 작가가 자신을 돌이켜 보건데 이미 所用없는 존재임을 인식하였기에 ‘何所用’으로 自問하고는 自答대신 텅 빈[空]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긴 휘파람[一聲長嘯]을 부르는 것이리라.

이 詩 역시 그 저변에는 立身揚名の 希求가 배어있으나, 신분제도의 현실적 제한으로 이러한 희망에 도달하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2) 佛家思想

宗教는 인간 내면의 진실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문학이란 인간의 가장 진솔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兩者는 성격상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참다운 실체를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종교적인 면에서 禪은 최소한의 표현으로 인생의 眞實在를 깨닫게 하려는 불교적 수행방법의 精髓이다. 문자나 언어로 표

5) 李達, 『蓀谷集』 卷4, 「書懷」.

현된 사실은 비록 論理的일지는 몰라도 傳達者와 被傳達者 사이에 정확한 의미가 전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禪에서는 ‘不立文字’니 ‘教外別傳’이니 하는 말들로 전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詩란 무엇인가? 문학의 한 장르에서 詩는 詩人의 思惟過程을 통하여 얻어진 가장 精製된 표현을 통해서 讀者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詩는 論理整然한 설명보다는 詩人이 전달하고자 한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상징적 언어를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禪과 詩는 다 같이 함축적인 일상성을 초월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類似性을 지닌 禪과 詩는 종교가 사회를 대상으로 전파되고, 문학은 社會相, 時代性을 반영한다는 同一線上의 점을 만나 접목을 시도하게 되는데 李達이 唐風을 따른 조선시대의 대표적 詩人이란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리라. 또한 唐代에는 禪과 詩의 접목의 시도가 가장 많았던 시대이다. 王維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李達의 경향이 그의 詩에 佛家的 色彩를 끌어들이 遠因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李達의 詩 중 불교적 색채가 짙은 것들 대부분이 불교적 교리의 심오함이나 또는 得覺한 偈頌의 정도는 아니고 현실세계에 대한 脫俗的 立場이 많다. 그러다 보니 山寺와 스님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禪風의 詩들이 많다.

이러한 禪風의 詩들은 李達의 詩 中 약 13餘首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 중 우선 「贈僧」을 살펴보기로 하자.

海氣連山沈夕暉	바다 기운이 산으로까지 이어져 저녁 빛에 잠기고
西庵鐘磬老僧歸	서쪽 암자에서 종소리 풍경소리 울리니 노승이 그제사 돌아오는구나
懸燈一夜同僧宿	등을 걸어두고 하룻밤을 스님과 같이 자게되니
清曉穿雲下翠微	맑은 새벽 기운이 구름을 뚫고 翠微까지 내려오는구나 ⁶⁾

이 詩는 산속 한 조그만 山寺에서 자연의 시간 경과에 따라 주변 환

6) 李達, 『蓀谷詩集』 卷6.

경의 변화와 佛理를 잘 접목시킨 작품이라 하겠다. 즉 저녁에서 깊은 밤 그리고 동트는 새벽녘까지 山寺의 주변 환경과 나의 깨달음의 과정을 아주 담담하고 조용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1句에서 ‘海氣連山’은 바다와 산으로 각각 개별적 自然에서 나[我]까지 포함된 총체적 自然이 ‘沈夕暉’에서는 모두 迷惑의 어둠으로 잠기게 됨을 의미한다. 2句에서는 ‘西庵鐘磬’은 迷惑의 어둠으로 잠기게 되었을 때 종소리 풍경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得覺의 계기가 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老僧歸’은 得覺을 도와줄 스님이 음을 의미한다. 3句에서 ‘懸燈’에서는 迷惑의 어둠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佛法 眞理를 탐구함을 의미하고, ‘一夜同僧宿’에서는 깨달음의 시기와 시간은 永劫에서 어느 한 순간이므로 올바른 佛法의 인도자와 함께 한다면 하룻밤에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또 스님과 함께 잔다는 것은 곧 僧我一同으로 佛法을 깨우치는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4句 ‘清曉’는 得覺의 결과가 ‘穿雲’라는 표현으로 모든 迷惑의 어둠을 가로막고 있는 세속의 번뇌를 거두고 ‘下翠微’로 참 깨달음에 도달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맑은 새벽기운처럼 맑고 산뜻한 깨달음의 경지를 禪理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경물을 빌어 표현하였으면서도 신비하고 脫俗의 인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다.

李達의 또 다른 佛家的 色彩의 詩 「佛日庵 贈因雲釋」을 살펴보기로 하자.

寺在白雲中	절이 흰구름 속에 있거늘
白雲僧不掃	흰 구름을 스님은 쓸지 않네
客來門始開	손님이 와서야 비로소 문을 여니
萬壑松花老	온 골짜기에 松花 가루만 날리는구나 ⁷⁾

이 詩는 전형적인 唐風의 詩로 이 역시 禪理를 나타내는 어휘를 쓰지 않고 자연 풍경을 빌어 脫俗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1·2句

7) 李達, 『蓀谷詩集』 卷5.

에서의 靜的인 분위기가 3句의 ‘門始開’와 4句의 ‘松花老’로 그 분위기를 動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1句 ‘寺在白雲中’을 살펴보면 산속에 佛日庵이 있는데 佛日庵 또한 白雲中에 있다. 온 산이 白雲속에 잠겨 있는 모습이 一切의 俗世의 煩惱와 雜慾이 수도하는 스님의 得道를 가로막는 형상이다. 2句에서는 白雲이 스님의 得道를 막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一切의 俗世의 煩惱와 雜慾인 白雲을 그대로 두고 修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修行에 沒入해 있는 스님을 깨우는 것이 3句의 ‘客來’인데 이 손님인 온 것에 대해 禪의 경지에서 自我로 돌아왔을 때, 나는 또 하나의 나와 만나는 것이다. ‘돌아온 나’가 손님이었을 때, 바깥을 볼 수가 있다. 語頭の 균열로서가 아니라, 자기에 몰입돼 있던 나와, 번뇌에 사로잡혀 있던 나가 만나는 순간, 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보았을 때, 이승의 송화 가루는 날린다. 송화 가루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분신이 되어 모든 業을 태우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佛日庵의 因雲스님은 해탈하는 것이다.⁸⁾라고 볼 수 있다.

李達의 또 다른 「贈僧」을 살펴보자.

一宿招提境	하룻밤을 절에서 묵으니
如來梵席同	석가여래의 梵席을 같이 하네
春山花影裏	꽃 그림자에 산은 봄빛을 한참 나타내고
古寺水聲中	물 흐르는 소리에 절은 고색창연하구나
問法心如幻	법을 물으니 心如幻이고
探禪性卽空	禪을 찾은 즉 性卽空이라
干戈時未定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漂泊各西東	서로 동서로 떠도는구나 ⁹⁾

佛家에서 得覺은 修行중 찰라간에 이루어진다. 즉 頓悟見佛性이 바로 그것이다. 1聯에서 ‘招提’ 즉 절에서 하루 밤을 보내는 중 佛我一同, 僧

8) 崔明煥, 「孤竹 崔慶昌論」,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p.18-19. 참조.

9) 李達, 『蓀谷詩集』 卷3.

我一同의 경지에 이른다. 2聯에서 내용전개가 春山 → 花影은 視覺的 效果, 古寺 → 水聲은 聽覺的 效果로 인간의 六感을 통해 깨달음 과정으로 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특히 이 聯에서 視覺과 聽覺을 대비시켜 입체적으로 잘 표현해 내고 있다. 3聯은 모두 일종의 佛家의 話頭요 禪問答이다. 작가가 스님께 法을 물으니[問法] 스님의 답변이 ‘心如幻’이라 답한다. 원래 萬法은 自心에 있고, 이 自心이 淸淨하다면 自心이 바로 眞如本性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明心則性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가의 의문에 대해 스님은 이미 작가의 마음상태를 아는지라 ‘心如幻’이라 답한 것이리라. 즉 森羅萬象의 不變의 常法이 實像이 아닌 虛像으로 보인다고 설파한 것이다. 또 작가가 禪의 본질을 찾으니 스님이 ‘性卽空’이라 답한다. 즉 이는 ‘諸法皆空’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詩에서의 가장 核心語요 가장 중요한 話頭이다. 이 詩의 각 聯의 구성을 세세히 살펴보면 1聯: 禪과 世俗의 合一 → 2聯: 작가의 世俗的 景物을 보는 시각 → 3聯: 작가와 禪僧의 禪問答 → 4聯: 작가의 世俗的 限界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작가의 의식 속에는 脫俗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현실 속에 얽매어 있어, 맨 끝련에서는 世俗의 전쟁과 떠도는 인생을 걱정하며, 人生無常과 生卽是苦의 佛理를 은연중에 표현해내고 있다.

또 다른 詩 「題金悅卿寫眞帖」을 살펴보기로 하자.

悅卿道高下	時習이 道高아래 내려왔으니
留影在禪林	질간엔 지금은 자취만 남았네
一片水中月	한 조각 물 속에 비친 달이여
千秋鐘梵音	千年을 물려줄 범종 소리여라 ¹⁰⁾

1·2句는 梅月堂 金時習의 높은 정절을 추모하나 현재 그를 만날 수 없으며, 단지 그가 남기고 간 자취 즉 道高의 한 禪寺에 남아 있는 영정만 볼 수 있을 뿐인 현실이 못내 아쉬운 작가의 심경을 표현해 내고 있

10) 李達, 『蓀谷詩集』 卷5.

다. 禪詩에서 일반적으로 ‘月’은 미혹함과 어둠을 밝히는 佛法の 眞理인 燈과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인다. 또 梵鐘 역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 여기서 작가는 ‘水中月’의 視覺的 效果和 ‘鐘梵音’의 聽覺的 效果를 잘 활용해 시를 보다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작가는 이 詩를 통해 지조와 정절을 지킨 梅月堂의 높은 정신을 천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고 싶어서 佛理와 접목시켜 이 작품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래 禪과 詩는 근원적으로 그 특성상 몇 가지 相異點이 있음¹¹⁾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類似點이 있다. 우선 그 첫째는 詩와 禪은 둘 다 象徵과 比喻를 중요시하며,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直觀을 통해 목적에 도달한다. 둘째, 詩와 禪은 최소한의 표현으로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시도한다. 禪은 教理의 眞體를 체득하고자 하는 고도의 수행방법이며, 詩 또한 가장 정제된 표현을 통해 작가의 性情을 노래하고자 한다. 셋째, 詩와 禪은 개인의 思惟過程을 중요시하며 사고를 유발시키는 실마리만 제공한다. 즉 전달자는 가장 함축적인 표현만을 던져 놓고 피 전달자의 능력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넷째, 詩와 禪은 모두 일상성을 초월한다. 詩는 문법이나 논리로 설명하는 문학 방식이 아니어서 일상의 언어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禪 또한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禪 본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詩와 禪은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적 표현이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禪을 부득이 언어문자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언어문자를 도구로 하는 문학 장르 중 가장 禪에 가까운 詩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禪의 본질에 그리 벗어나지 않고도 禪을 표현하는데 힘쓸 수 있었다.

11) 詩와 禪의 특성상 그 相異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詩는 文學的·藝術的 영역으로 性情과 興趣의 美的 表現이며, 禪은 宗教的·思想的 영역으로 人間本性的 깨달음을 추구한다. 따라서 詩의 悟性은 다방면으로 확산될 수 있으나, 禪은 오직 自性的 本來面目만을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둘째, 詩는 반드시 言語文字로 表記되어지며, 禪은 不立文字, 教外別傳으로 以心傳心이다. 셋째, 詩는 感情을 外的으로 發散하는 遠心的인데 반해 禪은 참된 마음을 찾아야하는 求心的인 것이다. 이상이 詩와 禪의 相異點이다.

詩 또한 禪의 思惟를 받아들여 詩의 내용에 깊이를 더할 수 있었기에 兩者는 그 특성상으로도 融合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이 唐代 이후에 禪家에서 詩를 援用하여 ‘以詩寓禪’하고, 詩家에서 禪의 興趣를 받아들여 ‘以禪入詩’하던 것이, 宋末 嚴羽에 이르러서는 ‘以禪論詩’하기에 이르렀다.¹²⁾ 또 嚴羽가 盛唐詩를 최고의 수준으로 친 것도 唐詩는 저절로 妙悟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풍조가 唐風의 영향을 받은 李達의 입장에서는 그의 작품에서 禪과 詩의 融合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李達의 禪적인 세계를 표현한 詩가 대부분 이러한 妙悟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음은 그의 詩 수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唐詩에 비견될 수 있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李達의 禪적인 詩로서 李達이 불교적 사유를 하고 불교에 깊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佛家的 詩들은 일반적으로 그가 세상사에 대한 집착과 고민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흘러나는 시간에 대해 초연함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일체의 집착과 욕심이 없는 불교적 사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禪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초탈함은 山寺에 머무는 동안이나 스님과의 交遊를 통한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히 속세의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

3) 道家思想

일반적으로 당시 조선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목표 하에 立身揚名을 추구하며 현실을 인정하는 儒家와 달리, 道家의 경우 현실에 불만족한 일부 識者階層이 탐닉하는 사상이었다. 즉 隱逸을 기본으로 해서 虛靜, 無爲, 玄虛, 逍遙自然 등의 개념들은 모두 당시로 보면 현실세계의 이단자들이나 방황자들이 심취하는 사상들이었

12) 杜松柏, 『禪學與唐宋詩學』, 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pp.197-204. 참조.

13) 金明희, 『蓀谷 李達의 詩研究』,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p.79-80.

다. 李達 역시 과거를 통해 立身揚名하고 建立功名하려 하는 出仕에 대한 노력이 庶孽이라는 당시 사회구조의 신분계급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실의와 절망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구로 超現實의인 道家思想에 그 안식처를 찾고자 하였고, 마침내 현실세계의 모든 욕망과 作爲를 다 버리고 방랑과 산중으로 隱居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李達의 詩 중 道家思想과 연관을 갖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詩는 약 27首인데 老莊思想보다는 神仙思想에 주로 가까워 道人, 仙界의 동경, 화려하고 신비한 仙界의 景物 묘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¹⁴⁾

李達 詩의 唐風의 특징 중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대체로 詩 내용이 道家의 夢幻의 분위기가 깊은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題金醉眠山水障子面」 중 그 셋째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鶴上紫煙衣	학 타고 자주 빛 안개 옷 입은
飄飄古仙子	날듯이 빼어난 옛 仙人이여
去入雲冥冥	구름 속으로 들어가 아득한데
天風吹不已	하늘 바람이 불어 그치지 않네 ¹⁵⁾

1·2句는 인간세계에서 저 하늘 높이 날고 있는 仙人을 바라보며 쓴 것이고, 3·4句에서는 구름 속으로 아득히 들어가는 곳이 바로 神仙世界인데, 이를 人間世界와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天風이다. 즉 작가는 자신이 처해있는 이 인간세계의 답답한 현실에서 하늘 높이 아무도 모르는 神仙의 세계로 脫俗하고 싶은 마음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이 역시 道家의 夢幻의 분위기가 깊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 仙界를 동경하는 분위기의 「次權進士韻」를 살펴보자.

14) 三國이래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온 道家思想은 문학에 있어서 巫俗이나 佛敎思想 등과의 摻合으로 매우 다양하고 변화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종교와 국문학」, 『한국사상대계1』,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3, p.132 참조.)

15) 李達, 『蓀谷集』 卷1, 「題金醉眠山水障子面」 其三.

夜氣冷冷生露烟	밤기운 냉랭하여 이슬 안개 끼고
碧空花月小樓前	작은 누각 앞에 푸른 하늘, 꽃 피고 달 밝은 그윽한 정취가 있구나
簷楹恍若虛無裏	처마 기둥은 황홀하여 허무 속에 있는 듯하고
笙鶴如聞縹緲邊	笙鶴 소리 지극히 먼 저 끝에서 들리는 듯하다
三島真人來上界	三島の 眞人이 上界에서 내려오고
九天仙醴醉瓊筵	九天의 神仙의 술에 경연에서 취하였네
明朝却憶今宵興	오늘밤의 흥을 내일 아침에 문득 생각해보면
浮世功名始可憐	헛된 세상의 功名이 하염없이 가엽게 보여지리라 ¹⁶⁾

首聯에서는 달빛 밝은 밤, 밤기운이 차서 이슬 안개 낀 작은 누각이라는 현실세계에서 頷聯의 처마 기둥이 허무 속에 있는 듯, 笙鶴 소리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상에 사로잡힌다. 여기까지 현실에서 비몽사몽간에 仙界로 접어든 듯한 환상에 사로잡히다가 이번에는 이보다 발전하여 작은 누각에서 같이 술을 대작하는 사람들을 上界에서 내려온 참된 道人으로, 또 神仙들이 마시는 술을 먹고 마치 자신들이 神仙이요, 앞의 작은 누각을 바로 神仙世界인 듯 작품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4聯에 이르러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즉 오늘밤의 神仙世界의 酒宴은 작가의 환상이고, 이러한 현실로부터의 탈피하고자 하는 작자의 마음은 헛된 功名만을 추구하는 俗人들이 사뭇 가엽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작자는 종종 仙界志向的 자신의 마음을 작품 속에서 자신을 仙人으로 끌어올려서 詩的 主體와 동일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詩風은 또 「題睡軒壁」에서도 볼 수 있다.

東嶺雲連西嶺雲	동령 구름이 서령 구름과 이어지더니
須臾風作雨紛紛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 비를 뿌리네
道人獨向山中睡	道人은 홀로 산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風雨山中睡不聞	비바람 몰아치는 산중에서 잠을 자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하네 ¹⁷⁾

16) 李達, 『蓀谷詩集』 卷4.

1·2句에서 구름의 변화, 또 바람으로 비까지 뿌리는 超脫的이고 신비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3·4句에서 이와 같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道人은 산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이미 자연 속에 일부로 自然과 同化된 道人은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아쳐도 잠이 들어 아무 것도 들리지 않다. 여기서 道人은 自然과 一體가 된 작가이기에 작가는 이 詩에서 자신을 入仙의 경지로 표현하고 있다.

또 「尋伽倻山」을 읽어 보면 이 역시 仙的 色彩가 짙다.

中天笙鶴下秋霄	하늘 속에서 笙鶴이 가을 하늘로 내려가고
千載孤雲已寂寥	천년 전의 孤雲이 이미 사라져 적막하거늘
明月洞門流水在	골짜기 어귀에는 밝은 달 비추고 물은 흘러 있건만
不知何處武陵橋	어느 곳이 무릉교인지 알 수가 없구나 ¹⁸⁾

천년 전에 神仙이 되었다는 孤雲 崔致遠은 이미 사라져 적막한데 어찌하여 하늘에서부터 笙과 鶴이 내려와 있는가? 작가가 立身揚名할 수 없는 신분제도 때문에 실의에 차있던 차에 자신의 입장과 같이 뜻을 이르지 못해 실의한 상황 속에 隱居하다 神仙이 된 崔致遠을 생각하며 武陵桃源의 길목인 武陵橋를 찾는다. 孤雲이 찾아갔을 武陵桃源에 들어가는 계곡으로 물은 쉼 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작가도 그곳으로 갈 수 있으면, 밝은 달 비추어져 있지만 무릉교를 찾을 수가 없는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의 仙界에 대한 憧憬과 無常感이 자연 풍경에 실려 지속적으로 여운을 남긴다.¹⁹⁾

위의 詩에서 급속한 변화를 통해 자연에 신비감과 脫俗感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이다. 仙的인 詩에서 바람은 仙界와 人間界를 연결하여 人間界에 仙界의 향기를 보내주어 인간들로 하여금 仙界에의

17) 李達, 『蓀谷詩集』 卷6.

18) 李達, 『蓀谷集』 卷2.

19) 김완기, 「蓀谷 李達 詩의 唐風的 特質에 대한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p.61-62. 참조.

동경을 자아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李達에게 있어서 禪이나 仙의 세계는 그의 해방과 초월에 대한 갈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사대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에게 유교적 윤리 규범은 내부의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었으니 禪의 깨달음을 통해 초월을, 仙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해방감을 맛봄으로써 괴로운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李達은 그러한 세계로 완전히 빠져들어 가지는 않았다. 다만 일시적인 위안으로 삼았을 뿐 그는 현실 세계를 떠날 수 없었으며 현실 세계에서 그의 포부의 실현과 安穩을 꿈꾸었다. 禪이나 仙은 일단 조선 시대의 儒學에서 이단시되던 것들이었으니 주로 方外人의 무리와 현실 세계로부터 떠나 은둔하던 자들이 耽溺하던 세계였다. 李達의 그러한 세계와의 접촉은 일시적인 것들이기는 하나 儒學 보다는 그를 더욱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특히 禪과 仙의 세계는 詩作에 있어서 妙棼의 경지를 추구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자유로운 사상의 개방기였던 唐시대의 神仙思想에 심취했던 李白이나 詩佛이라 불리웠던 王維의 詩世界와 비교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禪·仙的인 세계의 종교적인 脫俗感을 표현함으로써 이들 詩는 ‘清新’한 품격을 李達 詩에 더했다고 볼 수 있다.²⁰⁾

2. 李達 詩의 內容

1) 感情移入

李達의 詩 329首 중에서 자기 자신의 感情이나 情懷를 노래한 詩는 무려 173首나 되어 蓀谷의 詩가 개인적이고 情懷的이며 자신의 감정을 詩에 移入시킨 것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感情移入의 내용

20) 김명희, 앞의 논문, pp.85-86. 참조.

에 따라 나누어 보면 방랑생활 중의 나그네의 客懷를 그린 것, 만남에 이어 이별하면서 느끼는 情懷, 전쟁의 참상과 가난의 고통을 그린 것, 세속적인 포부에 대한 좌절감과 불우함의 한탄, 그리고 人間事의 榮枯 盛衰에 대한 무상감을 그린 내용 등으로 대강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선을 뚜렷이 그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감정들을 둘 혹은 셋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²¹⁾

李達은 평생을 떠돌아 다녔기 때문인지 나그네로서의 客懷를 읊은 作品이 感情移入의 詩中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詩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 또한 거의가 나그네로 표시되고 있다. 客地에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 명절을 맞는 때의 서글픔, 그리고 정착을 향한 希求가 客懷로 포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筋力嗟無建	근력이 신통치 못하니 슬프구나
悠悠病後愁	병이 난 후에 수심이 더하니
情人纔倚杖	부축을 받아서야 겨우 지팡이에 의지하고
爲客倦登樓	나그네 되어 누락에 오르기조차 힘들구나
嵐重遙山夕	멀리 노을 지는 산마루에 嵐氣는 겹겹하고
涼生古木秋	古木에도 가을 맞아 서늘한 기운 도는구나
逢窮賴知己	困窮하여 知己에게 신세져야 하니
賓館強淹留	어찌 할 수 없어 머무르게 되는구나 ²²⁾

나이 들어 병들고 생활마저 어려워니 知己에게 신세져야하는 서글픈 자기의 신세를 한없이 한탄하고 있다. 문장 전체에 ‘嗟’, ‘無建’, ‘悠悠’, ‘病’, ‘愁’, ‘倚’, ‘倦’, ‘嵐’, ‘夕’, ‘涼’, ‘古木’, ‘秋’, ‘逢窮’ 등과 같은 처연하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단어들로 계속 이어져 있다. 詩 작품 전체가 상당히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로 작가의 불편한 마음이 최대한 感情移入되어 있는 작품이다. 1·2句에서 병들고 근력조차 없음을 직접 설명하고

21) 김명희, 위의 논문, pp.21-22. 참조.

22) 李達, 『蓀谷集』卷3, 「病懷寧城涇孫使君」.

이를 3·4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남에게 의지하는 모습과 누락조차 올라가기 힘든 모습을 설명하였고, 5·6句에 가서는 자연 현상을 빌어 자신이 인생의 가을이고 그 가을에 서늘한 기운이 도는 古木임을 비유하고 있다. 7·8句에서는 자신의 뜻은 아니나 현실적 상황이 어찌할 수 없이 知己에게 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을 ‘強淹留’으로 담담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

李達은 명절을 맞이하여 나그네로서 느끼는 향수나 외로움을 노래한 詩 또한 많다.

朔吹沙榆落	삭풍으로 느릅나무 잎 떨어지고
河關驛路斜	河關에 역마 길은 비껴 났구나
客中逢九日	나그네 생활에 중양절을 맞이하니
上馬折黃花	말 위에서나마 국화꽃을 꺾어든다
飄梗無常處	머물고 떠남에 일정한 곳 없으니
良辰倍億家	좋은 날 집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遙遙望孤戍	아득히 멀리 외로운 수자리 바라보노라니
城堞隱悲笳	호드기 소리 성가퀴에서 애처롭구나 ²³⁾

이 詩는 重陽節을 맞이하여 가족도 없는 나그네 길에서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노래하고 있다. 원래 中國에서는 重陽節에 온 가족이 茱萸를 머리에 꽂고 높은데 올라 菊花酒를 마시면 일 년의 禍를 물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속 습관이 있다. 그러나 나그네 유랑길을 떠난 작가의 입장에서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조차 있을 수 없으니 그 마음이야 삭풍과 같이 스산할 수밖에 없다. 아쉽지만 그나마 말 위에서 국화꽃을 꺾어 들어본들 좋은 날 집 생각이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생 자체가 나그네와 같은 신세지만 그래도 작가의 입장은 머물고 떠남이 ‘無常處’이니 그 외로움은 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結句에서 ‘遙遙’, ‘望’, ‘孤戍’, ‘悲笳’ 등의 처연하고 고향에 그리움과 향수를

23) 李達, 『蓀谷詩集』 卷3, 「端川九日」.

나타내는 詩語들을 사용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했다.

다음으로는 生涯에 대해 感情移入을 한 詩를 살펴보기로 하자.

六月長沙路	六月 長沙길에
歸人觸暑行	더위를 무릅쓰고 가는데
孤村逢暮雨	외로운 마을에서 저녁 비를 만나
獨坐聽流鶯	홀로 앉아 있자니 피꼬리 소리가 들리네
在世長爲客	오랫동안 나그네살이에
行年已半生	벌써 半平生이 지났구나
何時竹林下	언제나 竹林 아래에서
棲息掩柴荆	사립문 닫고 깃들어 쉬어볼까나 ²⁴⁾

이 詩 역시 오랜 나그네 생활에 대한 회의와 田園에 정착하고 싶은 希望을 잘 표현하고 있다. 1·2句에서는 더운 여름날을 나타내면서 작가의 힘든 나그네 여정을 비유하고 있고, 3·4句에서는 ‘孤村’, ‘獨坐’ 등의 쓸쓸함에 대비되게 무더운 여름날 한줄기 시원한 빗줄기인 ‘暮雨’와 어디선가의 피꼬리 소리인 ‘流鶯’은 적막하고 홀로 있는 외로움에 대한 시원함과 즐거움으로 변하게 한다. 5·6句에서 자연스럽게 작가는 홀로 앉아 사색에 젖게 되는데 지나간 반평생의 나그네 생활에 대한 후회와 人生無常함을 느끼게 되고, 7·8句에서 자신의 끊임없이 유랑하는 나그네 생활에서 조용한 竹林에 隱居하며 언제나 쉬어볼까 하고 방랑생활에서 정착 생활로에 대한 강한 희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도 역시 강한 희망일 뿐 작가도 자신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기에 ‘何時’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별의 내용이 담긴 詩 「別李禮長」를 살펴보기로 하자.

桐花夜煙落	오동 꽃잎은 밤안개 속으로 떨어지고
梅樹春雲空	매화나무에는 봄 구름만 떠있구나

24) 李達, 『蓀谷詩集』 卷3, 「茂長道中」.

芳草一盃別 향기로운 풀밭에서 한 잔술로 이별하지만
相逢京洛中 서울에서 다시 만나세²⁵⁾

이 시는 일찍이 西浦가 五言絶句 중의 최고라 칭했던²⁶⁾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이다. 1·2句에서 밤, 안개, 떨어지는 꽃잎, 떠다니는 봄 구름 등이 환상적으로 미적 감각이 두드러지는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인상을 준다. 또한 까만 밤을 배경으로 하여 紫色과 白色의 색채감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캄캄한 밤하늘에 하얀 안개가 퍼지는 적막 속으로 한 잎 두 잎 고요히 떨어지는 꽃잎, 매화나무가지에 떠 있는 봄 구름을 배경으로 한 離別은 처량하고 처절한 슬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 잔 술로 이별을 달래지만 서울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²⁷⁾

다음은 전쟁이라는 슬픈 현실 속에서의 離別의 아픔을 보여주는 내용의 시이다.

一別嘉林已十年 嘉林에서 이별한지 벌써 10년인데
重逢顏貌海西邊 서해 해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구로
交遊散盡無多在 벗들 모두 흩어져 남은 이 많지 않은데
同學飄零問機全 同學들 죽고 살아있는 이는 그 몇 명인가
落日烟空愁去鳥 안개 휩싸인 夕陽에 날아가는 새 불쌍한데
故山雲木怨啼鶉 옛 산 구름 낀 나무에서는 恨 품은 두견이 우네
明朝又是懷歸路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돌아갈 생각하겠지
兩地相思各惘然 두 곳에서 서로 생각하느라고 惘然하겠구나²⁸⁾

이 시는 10년 만에 만난 친구와 그간 情懷를 노래한 것이다. 1·2句에서 가깝던 친구와 10년 만에 만나나 ‘海西邊’으로 향후 그 감정전개가

25) 李達, 『蓀谷詩集』 卷5.

26) 金萬重著·成樂熏譯, 『西浦漫筆』 下, 『한국의 사상 대전집』 18, 동화출판공사, 1977, p.440. “嘗閱本朝諸公詩 僭謂五言絶 嘗以李蓀谷桐花夜烟落爲第一”

27) 권선주, 「蓀谷 李達 詩研究」,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45. 참조.

28) 李達, 『蓀谷集』 卷4, 「留別洪君瑞」.

그리 순탄치 않은 앞을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전쟁통에 그 가깝던 친구들은 다 흩어져 지금은 몇이 살아 있고, 또 몇이 죽었는지 조차 모르니 3·4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침통하고 스산하다. 5·6句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 좌절하고 원한 품고 한없이 슬픈 작가 자신의 심경을 자연을 이용하여 비유하고 있다. 즉 ‘落日’, ‘烟空’, ‘愁去’, ‘故山’, ‘雲木’, ‘怨啼’한 심경은 모두 작가 자신의 심경이요, 그러한 ‘鳥’와 ‘鵲’은 바로 작가 자신을 비유하여 쓴 것이다. 이러한 자연에게로의 비유로부터 다시 7·8句에 이르러서는 작가 본인으로 돌아와 내일 아침이면 다시 헤어져야 하고, 그런 후 작가와 그 친구는 서로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서로를 아쉬움으로 생각하겠구나 하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2) 自然描寫

詩에 自然을 描寫해온 것은 매우 일찍부터이다. 中國의 경우 『詩經』 가운데의 比와 興이 곧 詩에서 自然을 묘사해온 것의 대표적인 한 예가 될 것이다. 詩와 人間 그리고 自然과의 親和關係 및 同化關係는 陶淵明의 田園詩를 통해서, 그리고 謝靈運의 山水詩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해왔다. 즉 魏晉時代에 玄學思想이 文學思想의 主流로 되면서 문학가들이 自然이나 山水를 그 작품의 주요한 소재로 채택하고 自然을 작품 속에 투영해왔다. 이리하여 魏晉時代의 自然文學은 바로 人間感情의 對象化이며, 感情의 自然化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詩는 ‘느끼는’ 예술로부터 ‘보는’ 예술로 바뀌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詩 中에서 감정의 자연에로의 深入은 곧 인생의 자연에로의 深入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생명내부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순결한 자연 속으로 확대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²⁹⁾ 또 이러한 경향들이 唐代에 와서는 그 시대 조류인 浪漫的 自然主義의 人生觀과 脫世的 隱逸 풍조를 타고 王維,

29) 徐復觀, 『中國藝術思想』, 學生書局, 1982, pp.150-162. 참조.

孟浩然 등의 自然詩派가 배출되고 自然詩의 전통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또 唐代에는 ‘詩中有畫’, ‘畫中有詩’처럼 詩와 繪畫가 서로 융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6세기 후반 조선은 내적으로는 黨爭과 농촌의 피폐, 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을 때였다. 이에 표면적인 안정보다 의식의 내면, 삶의 본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詩人, 文士들의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시기이다. 이에 宋代의 思辨的이고 主理的인 詩風보다는 참신하고 창조적이며 人情世態를 主情的으로 다스리는 唐詩에로의 復歸運動이 활발하던 때이기도 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李達 역시 이러한 學唐風을 가장 주창한 인물 중 하나였다. 또 當時 시대적 신분제도 하에 李達의 불우한 입장은 歸去來하고 싶은 鶯동과 竹林의 隱居 내지는 끝없는 방랑만이 탈출구였다. 이러한 李達에게 자연은 가장 좋은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李達 詩에 있어서도 자연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읊은 詩는 전체 詩의 약 1/4 정도(약 70여 수)를 차지하는데, 詩 형식상으로 律詩는 거의 없고 五言과 七言絶句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律詩는 복잡한 對偶平仄의 제한이 있어서 자연 현상의 표현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李達은 그의 思惟와 感覺樣式을 통하여 自然을 어떻게 詩化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畫題詩 중 「畫梅」를 살펴보자.

擁腫古槎在	울퉁불퉁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寒香知是梅	차가운 향기가 나니 매화임을 알겠구나
前宵霜雪裏	지난밤 눈서리 속에서도
尙有一枝開	오히려 한 가지 꽃을 피웠네 ³⁰⁾

30) 李達, 『蓀谷集』 卷1.

위의 詩는 四君子중 梅花를 제재로 하여 노래 한 것이다. 여기 1·2句에서는 울퉁불퉁 오래된 나무이긴 하나 차가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향기를 내니 이를 맡고서야 매화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3·4句에서는 겨울 아주 매섭고 찬 눈서리 속에서도 일반 다른 꽃들과 달리 꽃을 피우니 역시 群鷄一鶴의 君子다운 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四君子라 함은 東洋畫에서 그 高潔함이 君子와 같다는 뜻으로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를 일컫는 말인데, 그 중 梅花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 詩는 한 폭의 잘 묘사된 文人畫 같다.

老樹梅花發	늙은 나무에서도 매화가 피고
風鳴脩竹林	긴 대나무 숲에서 바람소리 울리는구나
山人踏雪至	산 사람이 눈을 밟으며 오더니
詩句自長吟	시귀를 스스로 길게 읊더라 ³¹⁾

이 詩 역시 四君子중 竹과 梅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다. 2句에서는 대나무 숲에서 바람소리 울리는 ‘鳴’으로 聽覺的 效果를 높이고, 3句에서는 ‘雪’로서 白色의 視覺的 效果를 높이고, 또 4句에서는 다시 ‘吟’으로 聽覺的 效果를 높이는 등 2·3·4句에서의 평면적 내용으로 갈 수 있는 작품 내용이 이러한 視覺과 聽覺의 교차 효과로 사뭇 입체적으로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산 속에서 눈을 밟고 오는 山人은 매화와 긴 대나무를 보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고고한 지조를 지키는 선비를 생각하며 자연히 詩를 읊는 것이다. 여기서 山人은 작가 자신일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鶴을 소재로 한 詩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鶴 역시 우리나라의 文人들이 즐겨 제재로 사용하고 있다.

獨鶴望遙空	외로운 학이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夜寒拳一足	밤 기운도 찬데 한 발로 서있네
西風苦竹叢	西風이 대숲으로 몰아치는데
滿身秋露滴	온 몸에 가을 이슬 젖어있네 ³²⁾

31) 李達, 『蓀谷集』 卷1, 「題畫」.

東洋畵의 四君子 말고라도 鶴 역시 君子의 孤高하고 高潔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림이나 詩에서도 많이 제재로 활용되곤 한다. 이 詩는 이러한 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1句에서 世俗과 타협하지 않고 홀로 高潔하게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雄飛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2句에서는 ‘夜寒’으로 鶴이 현재 처한 苦難을 비유하고 있으며 그런 苦難의 환경에서도 한 다리로 꼳꼳히 서있는 孤高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3句에서는 ‘西風’과 ‘苦’로 역시 鶴의 어려운 처지를 비유하며 그림에도 ‘竹’으로 그 올곧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4句에서 역시 온몸이 가을 이슬에 젖어도 그 고매한 자태를 흐트러트리지 않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한 작품으로 鶴의 이미지의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적절히 잘 배합하여 쓴 詩라 하겠다.

江村의 풍경을 描寫한 詩를 살펴보자.

古木葉已盡	고목의 잎이 이미 다 저버리고
山村秋水空	가을 맞은 산촌은 텅 비어있네
艤船人獨宿	사공은 홀로 잠들었는데,
風浪夕陽中	석양에 풍랑이 이는구나 ³³⁾

이 詩를 가령 한 폭의 山水畵라고 본다면 이는 미시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다시 말하면 자연 대상을 하나하나 묘사하기는 했지만 한 폭의 산수화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 그림의 전반적인 調和를 신경 쓰면서 묘사한 작품이라 하겠다. 1句에서 늙은 고목이 얼마저 다져 버린 것을 2句에서 ‘秋’와 ‘空’의 이미지로 연결시켜 자연스럽게 1·2句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다. 3句에서는 그 텅 빈 산촌 밑 강변에는 조

32) 李達, 『蓀谷集』 卷1, 「畵鶴」.

33) 李達, 『蓀谷集』 卷1, 「題畵」 其一.

각배 하나 위에 사공 달랑 혼자서 잠을 자고 있고, 4句에서는 夕陽에 風浪이 저 혼자 일고 있는 것이다. 1句부터 3句까지의 靜的인 분위기에서 4句에 이르러서 비로소 風浪만이 動的인 분위기로 조화 속에 破格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동양화 한 폭처럼 한적한 江村의 이미지를 잘 묘사해 내고 있다.

또 다른 自然描寫의 詩를 보기로 하자.

騎驢渡橋去 나귀 타고 다리를 건너는데,
 葉落秋山空 잎 떨어진 가을산은 텅 비었구나.
 下知日早晚 해가 이른지 늦은 지도 알 수 없으니,
 烟嵐飛瀑中 폭포에 물보라가 피어오르는구나.³⁴⁾

1句는 작가 자신이 나그네 길 가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고, 2·3·4句는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고 묘사한 것이다. 특히 2句의 ‘秋山空’은 공간적 효과를 표현한 것이고, 3句의 ‘日早晚’은 시간적 효과를 표현한 것으로 이 2·3句에서 時間과 空間의 교차로 입체적 효과를 내고 있다. 또 4句에서는 ‘烟嵐’로 신비한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飛瀑中’으로 이 작품에 매우 생동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자연풍경을 묘사하면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구도를 이루는 詩를 살펴보기로 하자.

近水蹠籬紅杏花 물가 성긴 울타리엔 붉은 살구꽃
 掩門垂柳兩三家 문 닫힌 두세 집엔 버들이 드리웠네
 溪橋處處連芳草 시내 다리 여기저기 방초가 줄이었고
 山路無人日自斜 산길엔 사람 없이 해만 절로 기울네³⁵⁾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아름답고 정감 가는 詩 한 편이다. 물

34) 李達, 『蓀谷集』 卷1, 「題畫」 其四.

35) 李達, 『蓀谷詩集』 卷6, 「山行關外作」.

가 울타리의 살구꽃, 문 닫힌 집의 버들, 시내 다리엔 방초, 멀리 산길로 해가 넘어가는 풍경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재로 마치 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잘 묘사하고 있다. 작품 소재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1句부터 4句까지 모두 객관화된 자연 속에 소재로서, 붉은 살구꽃과 푸르른 버들가지, 파아란 방초와 석양에 붉게 물든 저녁 노을 등 아주 아름답게 색채대비를 해놓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봄날 석양이 질 무렵 산과 시내가 있는 한 마을에 두세 집은 문도 닫혔고 산길엔 사람조차 없이 고요하고 적막한 풍경을 정감 있게 표현해 내고 있다.

蒼蒼谷口山	울창한 계곡입구 산에
上有靑楓樹	맨 위에 푸른 단풍나무 있구나
有時起晴雲	간간히 맑은 구름 일어나
忽作山頭雨	갑자기 산머리에 비를 흠뻑리는구나 ³⁶⁾

위의 詩에서 1·2句에서는 작가가 바라보는 눈앞에 펼쳐진 자연풍경을 고요하고 靜的인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3·4句에서는 앞과 달리 ‘起晴雲’과 ‘作山頭雨’로 활동적이고 動的인 분위기로 詩에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1·2句에서 자연묘사를 공간적 효과만 펴오다가, 3·4句에서는 ‘有時’, ‘忽’등과 같은 어휘로 자연 묘사에 시간적 효과를 덧붙여서 앞뒤가 서로 대치되는 구조로 그 예술적 미감을 잘 표현해 내고 있다. 이러한 입체적 효과는 李達이 아주 잘 쓰고 있는 표현 기교이다.

3) 現實批評

文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점이다. 文學이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문학

36) 李達, 『蓀谷詩集』 卷6, 「楓岳晴雲」.

자체가 갖고 있는 多面體的인 성격이 이러한 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일반적으로 韓國 漢詩가 韓國漢文學史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고 또한 수많은 작가들은 나름대로 漢詩를 지어왔다. 이런 과정 중에 漢詩는 순수 문학적 입장에서 한없는 美意識을 전개하기도 했고, 또한 功利的 立場에서 현실의 불합리와 사회부조리, 구조적 모순에 대해 여러 형태로 표현해 내왔다.

李達의 경우 역시 순수 문학적 입장에서 美意識을 추구한 詩들도 있으나, 이와 달리 當時 혼란한 사회 속에서 현실의 불합리와 사회부조리, 구조적 모순을 표현한 시들 또한 많지는 않지만 몇 편이 있다. 여기서 그 중 몇 작품을 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拾穗謠」를 살펴보자.

田間拾穗村童語	밭이랑서 이삭을 줍던 시골 아이들 말이
盡日東西不滿筐	하루종일 이리저리 다녀도 광주리도 안찬다네
今歲刈禾人亦功	이제는 벼 베는 사람들도 영악해져서
盡收遺穗上官倉	이삭까지 몽땅 주어 관청에 바친다네 ³⁷⁾

이 詩는 民謠體 樂府詩다. 1·2句는 흉년에 시골에서 흔히 보던 일이요, 그러므로 작가는 남의 어려움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不滿筐’한 원인이 官倉의 조세로 영악해진 인정 때문임을 확신하게 된다. 이처럼 시골 아이들의 푸념이 농사꾼으로 향하게 하므로, 제한 없는 노랫가락이 되어 입으로 입으로 전승되고, 그 음률의 뒤에 내재한 苛斂誅求에 대한 풍자가 배가되는 실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³⁸⁾

또 다른 사회 비평의 詩 「刈麥謠」를 살펴보자.

田家少婦無夜食	시골집 젊은 아낙네 저녁거리가 없어서
雨中刈麥林中歸	빗속으로 나가 보리를 베어 수풀 속으로 돌아오는구나

37) 李達, 『蓀谷詩集』 卷6.

38) 李炳疇外, 『韓國漢文學史』, 반도출판사, 1991, p.328. 참조.

生薪帶濕煙不起 생나무는 습기 차서 연기가 나지 않는데
入門兒女啼牽衣 문안에 들자마자 어린애들은 옷자락을 끌며 우는구나³⁹⁾

이 詩 「刈麥謠」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어휘가 ‘無’, ‘夜’, ‘雨’, ‘濕’, ‘不’, ‘啼’ 등으로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축축하게 젖어 드는 ‘눈물’과 ‘고통’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1句에서 비록 어린 아낙이지만 집안에 저녁거리가 없어, 2·3句에서 비가 억수처럼 오는 장대비속에 보리를 베어 오나 습기가 축축하게 차서 불도 잘 안 피워지는데, 4句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배고픈 어린아이들이 엄마 옷자락에 달려들며 배고픔을 하소연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하염없이 여운이 남으며 작가가 제3자의 시각으로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본 내용으로 사실적으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시속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젊은 아녀자의 노력을 1句에서 집안 → 2·3句 집밖 → 4句 다시 집안으로 이어지나 결국 좌절뿐이다.

또 다른 현실비평의 詩 「移家怨」을 살펴보면,

老翁負鼎林間去 할아버지는 솥을 지고 숲으로 가고
老婦携兒不得隨 할미는 어린애를 끌고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逢人却說移家苦 사람을 만나 집 떠난 고통을 말하네
六載從軍父子離 6년간의 從軍에 아버지와 자식이 헤어졌다오⁴⁰⁾

젊은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나이든 아버지와 어미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집 떠나 목적지 없이 東家宿 西家食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1·2句는 전형적인 전쟁 중 혼란한 세상 속에 힘없는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구구절절 묘사해내고 있다. 3·4句에서 작가가 길에서 만난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백성들의 하소연과 고통을 구어체 직접화법으로 대변하고 있다. 1句 ‘負’ → 2句 ‘不得隨’ → 3句 ‘苦’ → 4句 ‘離’ 등

39) 李達, 『蓀谷詩集』 卷6.

40) 李達, 『蓀谷詩集』 卷6.

의 어휘로 이 시 전체적인 기초를 암울하고 답답한 분위기로 끌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拾穗謠」, 「刈麥謠」, 「移家怨」 이 세 작품에 대해 許筠은 자신의 「鶴山樵談」에서 李達의 詩精神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⁴¹⁾

당시의 社會制度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 다음 詩가 바로 그것이다.

紫塞胡霜重	붉은 색 도는 요새에는 서리만이 겹겹이 쌓이는데
南天暖氣通	남쪽 하늘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네
孤飛水雲外	외롭게 구름 밖을 날아가다
誤墮罽羅中	잠깐 실수로 그물에 떨어지니
飲啄隨人意	먹는 것조차 사람 뜻대로 해야 하고
棲遲恨路窮	머뭇거리며 가려해도 길이 막혀있으니 후회스럽구나
浦沙眠夜月	밤마다 포구 모래 위에서 달 보며 잠들고
煙渚戲蘆叢	안개 낀 물가에서는 갈대떨기를 갖고 놀았었지
接躡鷗遙海	아득한 저 바다까지 날개 퍼덕이며 날아가기도 했고
聯行叫遠風	즐맞춰 날아가며 멀리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울부짖기도 했었지
長愁戈者矢	언제나 戈者의 화살을 걱정했었고
徒避莫徭弓	기껏 莫徭의 활이나 피해 다녔지
繕性能如此	本성을 길들이는 데는 이와 같이 했으나
生身本不公	날 때부터 신분이 근본부터 공평하지 않구나
念群渠獨嗇	무리를 생각하면 어찌 홀로 인색하여
無患爾何豐	걱정하지 않고 너만 어찌 풍족한가
在物雖形異	만물들이 그 형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懷鄉與我同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와 같구나
何當養六翮	언제나 큰 날개를 키워서
好去向雲空	구름 덮인 창공 향해 맘껏 날아볼까나 ⁴²⁾

41) 許筠, 『許筠全集』, 「鶴山樵談」 “益之詩 世或以花欠實病之 然其洞山驛詩 (中略) 田家食苦之態若親觀之 拾穗謠日 (中略) 凶歲村民之語 若親聆之 嶺南道中詩日 (中略) 其賦役煩重 民不聊生流離 幸苦之狀 備載於一篇中 使牧民者親此 而惕然警悟 施行惠活疲癯則其爲補於風化者 豈淺淺乎”

42) 李達, 『蓀谷集』 卷3, 「詠柳家孤鴈」.

조선시대 신분사회 제도 하에 작가가 느끼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이 詩에서는 새 우리에 갇힌 한 마리 새에 비유하여 표현해 내고 있다. 1句에서 ‘胡霜重’은 차가운 현실 세계를 뜻하며, 2句 ‘南天’은 먼 미지의 땅에는 ‘暖氣通’로 따뜻한 희망이 있음을 의미한다. 3·4句에서는 그러나 외로이 혼자 사회제도에 대한 탈출을 시도해 보나 결국 ‘誤墮 罽羅中’으로 자신이 신분이 불평등한 현실 세계로 갇히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5·6句에서는 신분제도의 구속과 억압을 恨으로 쓰고 있다. 7·8·9·10句에서는 불평등한 신분제도가 없는 사회의 자유로움을 묘사함으로써 이러한 자유스런 생활에 대한 강한 希求를 표현해 내고 있다. 그러나 11·12·13·14句에서 ‘繕性能如此’와 같이 최선을 다해 자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生身本不公’으로 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신분제도의 모순과 작가 자신의 한계를 직설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또 17·18句에서는 신분 불평등의 사회제도 안에 갇혀 있는 작가 자신과 그물 속에 갇혀 있는 새와 똑같은 처지임을 한탄하고 있다. 19·20句에서는 작가 내면적으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문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간절한 希求를 잘 표현하고 있으나 ‘何’로 그러한 희망에 대한 강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 詩에서 신분타파에 대한 작가의 결론은 역시 좌절이요, 끝없는 한탄이다. 뒷날 李達의 제자인 許筠이 『洪吉童傳』에서 庶子인 홍길동을 통해 신분타파의 주장을 강하게 펼친 것은 이러한 끝없는 스승의 염원을 반영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李達 역시 어쩔 수 없이 현실적 한계를 극복 못하고 자신 스스로 한탄하였기에 스스로 느끼는 좌절은 더욱 더 컸을 것이다. 李達은 뛰어난 詩才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自身의 포부를 世上에 펴고자 했으나, 當時 社會制度로 인하여 自己外的 원인인 賤한 身分 때문에 李達은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達이 불평등한 사회제도에 대한 심한 반발을 보이거나 강한 抵抗意識을 드러낸 작품을 많이 쓴 것은 아니다. 즉 그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社會를

바라보고, 모순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意志를 가지고 詩를 쓴 詩人 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인간의 순수한 情緒를 그의 詩心으로 아름답게 描寫하고자 한 순수 시인이었던 것이다.

III. 結論

李達은 詩文學이 당시에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詩人으로 불리웠으나, 그의 신분이 當時에는 천시 받는 庶孽이었기에 後代에 내려오면서 그의 문학적 가치에 비해 그리 큰 각광을 받지 못해왔다. 또 當時에 三唐詩人으로 불리울만치 한국한문학사에 커다란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李達의 詩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다소 몇 편이 있기는 하나 질적이나, 양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졌다. 本 研究에서는 그의 詩를 보다 다양하고 객관화한 시각에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본 논문은 상기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아 李達의 시 전체를 놓고 그 시작품의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李達 詩 속에 담긴 사상들을 儒·佛·道家思想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李達의 학문적 근원은 물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儒家가 기본적인 중심이 되었으나 유가 이외에도 佛家·道家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즉 이는 당시 시대적으로 차별 받는 庶孽이라는 신분 때문에 儒家에서 최종 목표인 立身揚名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갖지 못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修道的이고 幻想的인 禪과 道를 추구하여 현실의 괴로움을 超脫하고자 하였고 또한 이를 현실적인 도피처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둘째, 李達의 詩 作品의 內容을 感情移入, 自然描寫, 現實批評 등 이상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感情移入에서는 李達 자신이 이 삶

의 세계 속에 느끼는 客地에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 명절을 맞을 때 느끼는 서글픔과 외로움, 방랑생활을 통하여 느끼는 좌절감, 정착을 향한 회귀, 이별에 대한 아픔 등을 아주 구구절절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다.

또 自然描寫에서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一生을 流落生活로 보낸 李達에게 있어서 自然은 그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現實世界에서 소외된 李達의 위치에서 自己回復을 위해 探究된 對象이 自然이었던 것이다. 李達은 自然을 純粹한 美의 對象으로 보는 한편, 그 自然에 自身을 同化시켜서 藝術的으로 昇華시키고자 하였다. 李達의 思惟와 感覺樣式을 통하여 自然을 묘사, 그리고 詩化하고 있는데, 마치 한 폭의 山水畫 내지는 文人畫를 보는 듯하게 아주 섬세하고 깔끔한 필치로 自然을 객관화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또 現實批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李達은 뛰어난 詩才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自身의 포부를 世上에 펴고자 했으나 自己外的 원인인 當時 社會制度로 인하여, 賤한 身分의 李達은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심적 상태가 자신의 詩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東西分黨을 상징적으로 詩化한 것이나, 또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官가의 수탈을 노래한 것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여기저기로 피난을 다녀야 하는 고통과 가족들 離散에 대해 현실적 상황을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비평하고 있다.

本 研究에서 시도한 李達 詩의 儒·佛·道家思想에 대한 분석과 또 그의 詩 內容에 대한 분류 및 해석은 나름대로 李達 詩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여기서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연구기간과 본 연구자의 제반 여건 등의 한계로 인하여 中國 唐代文學과 李達의 詩와의 상호 연관관계 및 그의 詩文學이 後代 韓國 漢文學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문제 등등은 보다 시간을 두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參考 文獻>

- 金萬重, 『西浦漫筆』, 동화출판공사, 1985.
李 達, 『蓀谷集』,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 『蓀谷詩集』, 국립중앙도서관본.
許 筠, 『許筠全集』, 성균관대학교, 1981.
洪萬宗, 『許話叢林』, 아세아문화사, 1973.
『三唐集』, 해동문화원, 1985.
- 권선주, 「蓀谷 李達 詩研究」,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김동욱, 「종교와 국문학」, 『한국사상대계1』, 성균관대 大東文化研究院, 1973.
김명희, 「蓀谷 李達의 詩研究」,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김순자, 「孤竹 崔慶昌研究」,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김완기, 「蓀谷 李達詩의 唐風의 特質에 대한 研究」,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조선어문학회, 1931.
金學主外, 『中國文學史』, 동화출판공사, 1984.
文璇奎, 『韓國漢文學史』, 정음사, 1961.
徐首生, 『高麗朝漢文學研究』, 형설출판사, 1971.
유성준, 「蓀谷 李達의 盛唐風詩攷」, 『계명대 한국학논문집』 제7집, 1980.
劉若愚, 『中國詩學』, 범학도서, 1975.
유현숙, 「李達의 시문학론」, 『동악한문학논집』, 동악한문학회, 1984.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민중서림, 1973
李炳疇外, 『韓國漢文學史』, 반도출판사, 1991.
李炳漢,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통문관, 1985.
이종호, 「蓀谷 李達과 三唐詩」,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趙潤濟, 『韓國文學史』, 탐구당, 1968
震壇學會, 『韓國史』, 을유문화사, 1978.
崔明煥, 「孤竹 崔慶昌論」,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허경진, 「蓀谷 李達 研究」, 『국어국문학연구』 제78집, 국어국문학회, 1978.

홍창표, 「許筠詩話에 대한 小考」, 『국어국문학논문집』 제12집, 1988.

杜松柏, 『禪學與唐宋詩學』, 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徐復觀, 『中國藝術思想』, 學生書局, 1982.

Abstract

*A Study on Leedal's Poetry / Park Ro Heyn**

It is considered that Leedal(李達)'s literary value has not been in the spotlight after his time, because his social position as a man by a concubine was to be disdained. But the literary value of his poetry works had been considered to be the highest stage at that time. Those days he also got the great accomplishment of Chinese literary history in Korea as comparing to the three famous Chinese poets[三唐詩人].

First, Leedal's thoughts of his poems can be classified by three categories such a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lthough his major academical background was Confucianism in the view of that time, various themes are represented at the base of Buddhism or Taoism. It was discriminated for concubines' offsprings who to succeed in life at that time, which was unfair Confucianism system for them to reach the final goals. Therefore Leedal tried to transcend the difficulties of his reality by pursuing goodness and awakening, which contributed for him to regard as escaping his realities by seeking for ascetic and fantastical world.

Secondly, the Analysis of Leedal's poems are categorized such as empathizing, describing natural surroundings, criticising realities, and so on. The empathizing parts represents his self-frustration of his real world, pursuit toward domiciling himself, and the sorrow of parting. And describing natural surrounding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Leedal wandered over his whole life, which gave him the opportunity that natural states were always nearer distance. With his speculation and feeling style he described nature and

* Professor of Sangji Youngseo College / san0877@hanmail.net

pictured poems like a landscape painting or a painting with writing. These delicate and smart writing style are his characteristics of describing objectified nature.

Thirdly, There are the realities criticized and symbolized poetically the spilt of the political party between East and West, the government plundering songs through children's mouth, and the sufferings and scattering here and there during the wars. Leedal described all of the existing situations with the sense for the reality and actuality.

【Key words】 Lee Dal, poetry,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empathizing, describing natural surroundings, criticising realities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